FX Market Daily

2024-10-18

전일동향

전일대비 6.00원 상승한 1,368.60원에 마감

1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6.00원 상승한 1,368.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달러-원 1개월물 상승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90원 상승한 1,364.50원에 개장했다. 간밤 트럼프 당선 가능성 고조 및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에 환율은 1,369.90원까지 레벨을 높였다. 그러나 외환당국 경계감 작용으로 환율의 상승세가 후퇴하며, 1,368.6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4.8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4.50	1373.30	1363.70	1368.60	1366.50
엔화	910.52	916.80	910.39	910.97	-
유로화	1479.99	1489.67	1478.96	1482.24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	-5.62	-12.58	-23.3
결제환율(수입)	-0.55	-4.55	-10.67	-19.9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견조한 미국 경제 상황에...1,37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68.60) 대비 2.70원 상승한 1,369.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및 유로화 약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 증가해 예상치(0.3%)와 이전치(0.1%)를 상회했다.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4.1만건을 기록하며 컨센(25.9만건)을 하회했다. 미 소비 호조와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연준의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며, 달러인덱스는 0.25 상승한 103.77을 기록했다. 한편 ECB는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로화는 연속적인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약세폭이 확대됐다. 엔화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약세를 보였다. 달러화 강세 및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금일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 및 국내증시 외인 자금 이탈 등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국 미세조정 경계,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은 환율의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8.00 ~ 137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044.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70원↑
	■ 美 다우지수 : 43239.05, +161.35p(+0.3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5.3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93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